



들꽃편지 648

2023.1.20. 대한
<https://cyw.pe.kr>

주님과 회동하는 삶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제 마음속 의자에 하나님께서 회동(會同)하시어 '임재(臨在) 하심 가운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과정을 열어주신 만큼 글로 풀어 썼습니다. 차마 글로 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메시지를 받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것도 나눌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동행'이라는 주제로 4권의 책을 써야겠다는 감동을 받고, 드디어 4권의 책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 ① 구약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② 4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 ③ 예수부활승천 이후의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 ④ 오늘 내 삶에 오셔서 지금 동행하시는 -〈주님과 회동하는 삶〉

저는 4권의 책을 쓰면서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 이야기는 파면 팔수록 엄청난 보화가 쏟아지는 금광임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글을 쓰는 중에 신기하게도 강원도에 지명이 '회동(會同)'인 곳에서 저를 불러 그곳 공간에서 피정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동으로 가는 것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가 회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어디든 그곳이 '회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해도 주님이 제 마음과 삶에 회동하셔서 임재하시니 제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옵나이다!

♥ 날마다 주님과 회동하는 최용우 올립니다.



아무리 말의 아름다움
이랴도 바닷사정
비슷하다. 그러므로
함부로 하지 말 것
2022. 10. 1.

글 이현승 시인
글씨 이준우

책이란 모름지기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어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39 너도 입을 수 있겠니?

외국인 젊은 부부가 경비로 일하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러시아 여성은 사우디로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예쁜 아이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여자는 이슬람을 믿는지 늘 히잡을 쓰고 무더운 한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밖에 나옵니다. 젊은 여인임에도 한 번도 히잡을 벗은 머리를 못 보았으며 짧은 반팔이나 반바지 혹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 사시는 할머니들이 그 여성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이구 답답혀, 보는 내가 더 답답혀”

“집안에서도 저럴라나 모르겠네.”

땀이 비 오듯 후덥지근한 날씨임에도 온몸을 감싸고 다니니 도리어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말을 합니다.

조그만 동네에서 히잡을 벗었다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도리어 벗고 다니면 더 예쁘다고 말할 텐데 누가 보던말던 이 무더운 여름에 고집을 피웁니다.

경비실에서 그 여자가 밖에 지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에 들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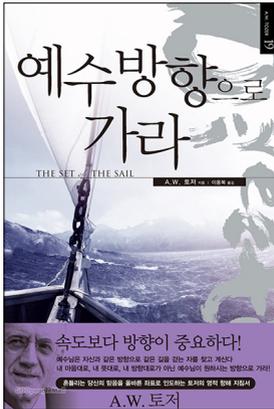
“너도 저 여자처럼 나를 위하여 저런 무더운 옷을 입을 수 있겠니?”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



토저 마이티 시리즈 19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64쪽 13,000원 규장 2013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자를 찾고 계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1. 의지(意志)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자유의지가 나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순종의 결단도 내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2. 행동은 마음에서 나온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지성, 의지, 도덕, 동정, 반감 등등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포함됩니다. 죄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의 감정(욕구), 지성(상상), 의지(계획)을 오염시킵니다. 마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호의적인 감정이 생기면 의지를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3. 의지로 생각을 통제하라

생각을 통제하는 힘은 의지에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으로 생각을 통제하여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곧 행동입니다.(빌4:8, 시112:7)

4. 진리의 길

인간은 자기 삶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죄로 인해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라고 합니다.

5. 헌신(dedication)

헌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룩한 개념이 담긴 ‘성경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분명히 ‘신적 존재를 섬기거나 경배하기 위해 전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마구 사용하면 안 됩니다.

6. 하나님을 추구하는 복

피타고라스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첫째 지식을 추구하는 자, 둘째 명예를 추구하는 자, 셋째 돈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몰랐던 두 부류가 더 있습니다. 넷째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자, 다섯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인 삶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7.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십니다. 나에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분만 남아 있다 해도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요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해도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주의 거지입니다. 영원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교회가 구제, 교육, 상담, 사회운동, 정치참여 등등 그런 일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전히 집중할 때 교회는 가장 순수해 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며 비웃을 것입니다.

9.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초대교회 신자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열정으로 불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세력을 격파하기 위해 주님께 작전 명령을 받은 군대의 정예부대원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거룩하고 용감한 열정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10.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됩니다. 변질 된 씨앗을 뿌리면 변질 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선 시작해야 할 일은 '도덕적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영적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11. 성경의 분명한 목적

성경은 죄악의 들판에서 해매는 인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지도이고, 의에 관한 교훈의 책이고,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고, 하나님, 인간, 생명, 사망,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 인간은 구원과 생명을 얻고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12.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는 것

전 세계에서 1년에 수천만권의 성경이 발행되고 판매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갈까요? 만약 전 세계에 걸쳐서 수십 만명만 성경을 읽은 대로 살았다면 세상은 아마도 도덕적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히기는 하지만 가장 실천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13. 성경에 대한 오해

성경을 과학이나 경제학이나 기타 다른 과목의 교과서로 삼으려는 시도는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오는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든 책들과는 다른 성경의 유일무이한 목적입니다.

14. 양다리 신앙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양다리 신앙인들에게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타협적인 해결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줌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양다리 신앙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15. 십자가는 타협하지 않는다

영적 능력을 얻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하늘의 아들로써 이 땅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않기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영적 능력을 얻어 영적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6. 회개가 빠진 복음

복음은 ‘거저 주는 죄 사함’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제공되는 죄 사함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메시지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절제와 의와 경건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17. 죄로 유혹

마귀는 탁월한 전략가로서 그는 백전노장의 장군처럼 작전을 바꾸어가며 우리를 멸하기 위해 전략을 구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먹혔고 세월이 흐른 지금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타락한 마음’과 은밀히 내통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18. 덕으로 유혹

마귀의 교활한 전략은 우리의 덕을 이용하여 우리의 저항을 무력화시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사람들에게 유포시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미소짓고 온유하고 관용적인 분이다.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속입니다.

19. 사라진 제자도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당장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고만 하고 ‘회개’와 같은 도덕적, 사회적 문제인 ‘제자도’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복음을 처음 전해 받은 사람들은 복음과 제자도가 서로 분리되어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20. 앵무새가 아닌 독수리로

복음을 믿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가 아니라 앵무새입니다. 그들은 저 멀리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황무지를 탐험하지 않습니다. 대신 편안한 화에 앉아 자기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 어휘들을 맑은 가성을 써서 반복할 뿐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적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독서일기〉 책을 읽으면서 한 챕터를 200자 원고지 한 장 길이로 요약하거나, 제 말로 바꾸어서 원고지 한 장 길이로 쓴 것입니다. -최용우

이모

딸만 내리 다섯을 낳은
우리 외할머니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문밖에서
산파에게 물었습니다.

손가락은 몇 개?
열 개 다 있고마
발가락은 몇 개?
열 개요
고추는?
눈이 침침해 안보이요.

허- 또 가시내여?
아이고, 이제 그만!
그래서 여섯째
우리 이모 이름은
양 금안(그만) 입니다.

최용우 제8시집<일상의 행복>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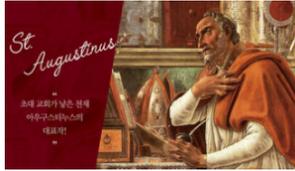
일상의 행복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러) 13600원

[덧글]

닷별 /ㅎㅎ 시인님 덕분에 피곤한 하루를 웃으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시 잘 감상하고 가옵니다 꾸벅

정령들과 천사들의 비교



231.이제까지 한 이야기와 앞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

어떤 사람들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좋은 신만 존재한다고 믿고 그 신은 착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령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하였으나 결국 정령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철학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플라톤학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정령들은 신과 인간들의 중개자가 아니며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232.신들보다 뒤떨어진 정령 속에 인간의 혼을 구해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선한 부분이 있는가? 선한 정령들을 따라야만 죽음 뒤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악한 정령들의 함정에 빠져 오히려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의 혼, 곧 이성적이며 지성적인 혼은 행복해진다.

233.아풀레이우스는 정령들이 이성을 가졌다고는 했지만

덕을 지녔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공기로 이루어진 정령에 대해 많은 설명을 하지만, 선한 정령의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반대로 악한 정령에 대해서는 폭풍처럼 난폭한 감정에 휘둘려 어리석은 인간들의 정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정령의 지성은 격정적이며 타락한 감정에 맞설 진실과 덕성도 갖지 못한 채 세차게 흔들리는 바다일 뿐이다.

234.소요학파와 스토아학파의 혼에게 일어나는 정욕에 대한 견해

그리스인들은 이런 정신적 감정을 ‘파테’라고 부르고, 키케로 같은 사람이나 작가들은 ‘격정(petturbatio)’이라 부르며, 어떤 이들은 ‘감정’이라고 부른다. 또 아풀레이우스는 ‘정념(passio)’이라고 부른다. 플라톤학파와 아리스토텔레스학파도 정신의 지배를 이성으로 조절하며 통제된 결과 정신 지배가 여러 방법으로 감정에게 법을 부여해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계속

하늘나라

(*βασιλεια των ουρανων*)

바실레이아 툰 우라는



1. 하늘나라란 무엇이야?

오래전 경험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똥바가지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루에서 잠깐 찬송을 부르는 중에 어디선가 똥이 가득 담긴 철모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옛날 재래식 변소는 항아리에 똥이 가득 차서 똥을 풀 때 군인들이 쓰던 철모에 긴 막대기를 끼워서 똥을 푸면 푹푹 잘 퍼졌습니다. 그 집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드리는 곳에 똥바가지를 푹탄 던지듯 냅다 집어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황급히 철수를 했습니다. 저에게는 국물이 몇 방울 튀는 것으로 그쳤지만 그때 담임 전도사님은 날아오는 똥바가지를 골키퍼가 축구공 잡듯이 가슴에 덤석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되신 그분과 만났을 때, 똥바가지 사건을 떠올리며 배꼽 빠지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군요.

우리는 그때 그 할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냇가에서 그 독한 똥냄새를 빼려고 비누칠을 하여 박박 문질러 씻으면서 오히려 할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하늘나라란 똥바가지 푹탄이 날아와도 그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고 깔깔대며 웃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은 세상에 쉽습니다. 특별히 무슨 신학론이나 세미나나 기가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곳’ 어디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7391)

2.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

“전도사님은 하늘나라를 본적이 있으세요?” 호기심 많은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본 것도 같고, 보지 못한 것도 같고..” 저는 하늘나라를 본 사람에게에는 ‘보았다’고 대답해주고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사람에게에는 ‘못 봤다’고 대답합니다. 만약 하늘나라를 환상이나 꿈이나 신비스럽고 비이성적인 특별한 상태에서 또는 죽은 후에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맑고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두리번거리며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시53:2) ‘지각(知覺)’이 무엇입니까? 감각 기관의 자극으로 생겨나는 외적 사물의 전체상(全體像)에 관한 의식입니다. 즉 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홀린 듯한 마취상태에서 허깨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또렷또렷 인식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며, 이를 들을지어다.’(렘5:21)라고 하시며 탄식하십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지각과 이성으로 보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인식 수준이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면서 휘방합니다.(유1:10) 조심스럽게 다시 묻고 싶네요 “하늘나라를 본적이 있으세요?” (7392)

3. 하늘나라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최고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헌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법률을 거부하면 그 누구라도 국외로 추방됩니다. 오래전 한 유명한 가수가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미국으로 도망간 이후 지금까지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헌법도 그동안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계속 개정하겠지요.

하늘나라의 헌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의 최고법이며 하나님을 믿겠다

고 작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성경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국가의 헌법은 필요에 의해 계속 '개정'되지만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단어나, 문법, 문장을 새롭게 수정하기는 해야지요.

'개정'이란 변경시킨다는 뜻인데, 성경은 변경시키는 게 아니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다듬은 성경 이름을 '개정'이라 했을 때 저는 신문에 '개정' '개역'이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라고 기고글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의 의견에 콧방귀도 안 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그것이 수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바뀌고 헌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성경'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늘나라의 헌법이라서 하나님께서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7393)

4. 하늘나라의 희망

이 세상은 불완전하며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 불완전함이 인간고(苦)의 원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선택한 후 인간들은 찢어진 세상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신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온갖 자연재해와 감염병과 질병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얽히고설켜 만들어 내는 수많은 불행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완전한 안전, 완전한 자유, 완전한 행복, 완전한 정의 혹은 완전한 기쁨을 바라며 정치, 경제 혹은 과학이나 사상을 발전시키며 노력을 해보지만, 이 세상은 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류 종말 시계는 11시 58분 20초를 가리키며 이 세상의 멸망까지 앞으로 100초 <파국을 막으려면 이제는 행동해야할 때>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완전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마5:48)고 합니다.(개정성경은 '온전'이라 번역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한 마디로 내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희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7394)

5. 하늘나라는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를 포함 성경에 천국에 대해 19번이나 언급하십니다. 그 핵심 내용은 <천국은 ‘장차 올 가시적인 천국’과 ‘현재 온 현세적인 천국’ 2가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차 임할 가시적인 천국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임한 천국은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한다.>

제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예수님도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십니다. ①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②가시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다시 영광을 받을 때이다.(눅17:20-30)

누가복음 17장은 장차 나타날 가시적인(재림) 하나님 나라는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인자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마21:43)

삶이 팍팍할수록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재림하셔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세적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해하고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도 비록 천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천국의 그림자’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현세적 천국을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지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7395)

6. 하늘나라의 경험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길가의 풀잎 끝에 달린 이슬방울 속에 있습니다. 들판에 흐르는 시냇물 속에 있습니다. 양양한 바다의 성난 파도 속에 있습니다. 사막을 휘쓰는 바람 속에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1:20) 천문학자나 생물학자들 가운데 신앙인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고 빈틈없는 삼라만상의 질서와 법칙의 오묘함과 신비로움을 신(神)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신비 또는 인간 역사의 섭리 등은 절대자를 발견하게 하는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의 발자국과 손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 즉 핑계하지 못할 표시를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시하셨으며 우주의 전 창조 속에서 매일 자신을 나타내신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인 지식이 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자연에 계시 된 하나님의 그 기술의 탁월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히 무슨 신학론이나 세미나나 기가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어디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7396)

7. 하늘나라와 교회

교회가 하늘나라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教會)가 하늘나라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면 하늘나라이지만,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하늘나라는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늘나라 안에 있어야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아냐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척만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를 찾아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 단체처럼 서로 자리다툼을 하고, 미워하고, 편 가르고, 거짓말을 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것을 보고 “여기도 지옥이구만” 하고 나갔다는 예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5)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ecclesia)인데 ek(밖으로)와 caleo(부르다)합성어이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증거는 초대교회는 회당(synagogue건물)이란 단어로 교회를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흥내를 내는 ‘유사기독교’의 특징은 교회를 마치 군대조직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서 누구든 한번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7397)

8. 하늘나라를 이루는 방법

언젠가 아무개 교회 금요철야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요, 서로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를 불러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저런 사람을 강사로 세웠느냐.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놈을...” 저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천국이 어떻게 지옥이 어떻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고, 교인들은 웃으며 뒤집어졌는데 그것이 불편한 분도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분노와 원한을 멈추고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하면 즉시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준다면 그 즉시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딱딱 지원한다면...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인정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을 칭찬한다면...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넉넉하고 주고 노동자들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 없으면 교회도 지옥, 가정도 지옥, 회사도 지옥, 세상도 지옥입니다. 사랑 있으면 교회도 천국, 가정도 천국, 회사도 천국, 세상도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도 지옥도 모르는 놈’이라 이정도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군요. (7399)

9. 하늘나라와 사랑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주와 마노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반짝이고 황금이 아스팔트처럼 깔린 길을 걸으면 발바닥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들려올 것 같은 ‘하늘나라(천국)’는 정말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저는 진주나 마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금이라고는 반돈짜리 돌반지를 산 적은 있어도 황금덩어리는 구경도 못 해 봤기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저 먼 ‘하늘나라’는 지금은 저의 관심 밖입니다.

오래 전에 ‘주기도문’을 뒤집다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라는 부분을 깊이 연구해 보니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땅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마

음속'입니다.(어떤 유사기독교는 과천 천계산(청계산)이 천국 땅이라며 거기에 새 천지를 건설을 하려다가 건축허가가 안 나서 포기했다죠.)

종교개혁의 기독교는 '오직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고전13:1-13) 제2 종교개혁은 '오직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쉽습니다. 특별히 무슨 신학론이나 세미나나 기가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곳' 어디든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싶어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 0.41초만에 약 208,000,000개가 검색되네요. (7398)

10. 하늘나라의 사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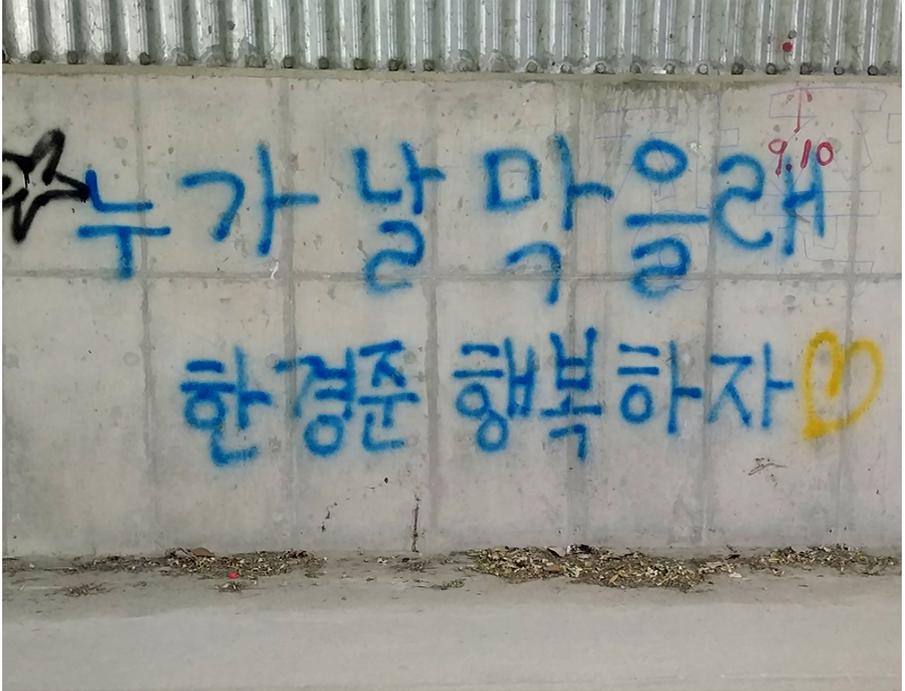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재능도 많고, 능력 있고, 공부도 잘하고, 써먹을 곳 많은 유능한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하나님은 어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나는 모릅니다. 다만 '사랑' 때문이라는 것밖에 나는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든 말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취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바다와 같고 우주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나는 평생 하나님 사랑의 100억분의 1 만큼이라도 흉내 내면서 살아야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다만 남을 사랑하겠습니다. 남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억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 나는 내가 먼저 남을 사랑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네'라고 말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유치환 시인은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행복하나니라'고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먼저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은 삭막하네. 말세야 말세'라고만 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열 번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인도하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나를 사랑의 길로 조심스럽게 인도합니다. (7400)

©최용우



다리밑 낙서 (사진:최용우)

질풍노도의 시기

“운동을 할 때 대평성서침례교회 앞 지하도를 통해 용수천으로 나간다. 전등이 띄엄띄엄 있어 낮에도 약간 어두침침한 이 통로를 통해 성덕리에 사는 초중학생들이 통학을 한다.

지하도 벽에는 온갖 낙서들이 가득하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사랑 고백의 낙서도 있고, 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이니 이성에 대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을까... 그런 중학생들의 ‘성적 관심사’가 적나라하게 낙서 되어 있다.

공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압박으로부터 토해놓듯 꼬적인 낙서도 있다. 지지분 하다가 보다는 하나씩 읽어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다.

아마도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집에 가다가 누가 오나 안 오나 두리번거리며 낙서를 했겠지.

화장실 묵상

문을 열면 북풍한설 찬바람이 쳐들어오는 날 아랫배가 싸르르 아파 나는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화장실로 달려가 앉았다. 한바탕 변기에 폭탄을 투하하고 잠시 앉아서 숨을 고른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추운 날 엉덩이를 깔고 편히 앉아 거사를 치루어도 축지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감사가 절로 나온다.

중학생 때까지 나는 '변소'라는 곳에서 똥을 똥다. 겨울에는 똥을 누면 차곡차곡 쌓이면서 얼어 똥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막대기로 밀어서 똥탑을 무너뜨려 준다. 겨울에 변소에서 일을 보면 정말 엉덩이가 시렸다. 안양에서, 인천에서, 보은 산골짜기에 살면서도 아래가 다 보이는 푸세식 화장실은 겨울에 정말 추웠다.

그런데 이렇게 비록 온수는 안 나오지만 비데까지 달린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나.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

이 세상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오투기도 넘어진다. 넘어졌다가 다시 발딱 일어난다. 그런데 '구(球)'는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질 수가 없는 완벽한 구조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구(球)를 만드셨다. 태양, 지구, 별, 우주, 사과, 배, 수박... 사람의 대갈통도 구다. 세상이 온통 구이기에 가장 원시적이며 동그란 구 하나와 운동장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경기인 축구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피라미드'라는 바벨탑을 만들어 감히 하나님께 도전한다. 피라미드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하 지배구조이다. 그러나 꼭대기만 행복할 뿐 아래로 갈수록 위를 떠받치느라 불행하다. 결국 피라미드도 무너진다. 그러나 공은 애초에 넘어짐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래서 공은 영원이고 평등과 평화이다.



사진:픽사베이

성경을 잘랐다

전직 아나운서이셨던 분이 개인역으로 만든 <구어체성경>을 한 권 구입했다. 39년 동안 아나운서를 하신 분이라 성경 번역이 반듯하고 깔끔하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성경이다. 진작부터 이런 성경이 한권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그 성경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지퍼가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다. 성경을 펼칠 때도 지퍼 때문에 성경이 안에 갇혀 잘 안 퍼지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나는 성경을 지퍼 속에 딱 가두어 두면 성경이 숨을 못 쉬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가위로 지퍼를 잘라냈다. 성경책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나는 성경책을 면도칼로 30등분 해서 매일 한 조각씩 들고 다니며 읽은 적도 있었다. 성경책은 고이 모셔두는 책이 아니다.

성경책이 지저분해질수록 마음은 깨끗해진다.



신기한 마술

아이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면 냉장고와 집안을 스캔해서 가지고 갈 것을 전부 챙겨놓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한다.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살림 도구가 나중에 보면 서울 아이들 집에 가 있다. 좋은 것은 다 주고 우리는 옛~~~날부터 쓰던 거 그냥 쓴다.

“엄마, 후라이팬이 다 벗겨졌는데 흑 집에 안 쓰는 거 있어요?”

“후라이팬 얼마 안 하니 그 정도는 너희가 새것 사서 쓰거라.”

오늘도 아내가 아이들에게 보낼 택배 목록에 적어 놓은 것 냉장고에서 다 꺼내니 이삿짐 풀어놓은 것만큼 많다. 스티로폼 박스 하나에 다 넣었다. 나는 물건이 얼마가 되었든 무조건 상자에 다 집어넣는 마술을 부릴 줄 안다.

아이들은 택배가 도착하면 둘이 힘을 합쳐 질질 끌고 들어가 보물상자를 열어서 끊임없이 나오는 물건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른다.



그냥 불편함

외출을 할 때마다 동네에 비어있던 농협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복어찜 전문점’ 식당 옆을 지나다닌다. 마을회관에서 쪽 걷다 보면 계속 식당 지붕이 눈에 들어 오는데, 볼 때마다 참 불편하다.

식당 주방에서 나온 환기구 연통을 왜 저렇게 비스듬하게 설치했을까? 그러니까 지붕 스테트의 골을 따라 위로 쪽 올라 가서 꺾어 용마루를 타고 기억(-)자 모양으로 설치를 했으면 지붕이 단정해 보이고 깔끔할터인데 마치 일을 대충 한 것 마냥 불편하다.

그냥 내 눈에 시각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이지 저 지붕의 환풍구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 “저런 게 있었나?”

나는 ‘점액질’ 기질이지만 또 무엇이든 완벽하게 아구를 잘 맞추어서 해야 만족스러운 완벽주의 기질도 조금 있다.



설거지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어떤 연예인 남편이 “설거지가 취미입니다. 설거지만큼은 제가 아내보다 더 잘합니다.”라고 하자 남자들은 “에이, 그게 무슨...” 하는데 여자들은 일제히 웃으며 박수를 쳤다.

설거지,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냥 대충하면 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설거지도 나름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나는 취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거지를 열심히 한다. 하루에 한 번씩은 하려고 하는데 부지런한 아내가 어느새 해치워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잘 안 온다.

남자 손은 커서 텀블러 안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닦아야 하나 머리를 굴리고 있었더니 아내가 보다못해 어디선가 최신 장비(?)인 솔을 꺼내 쓱쓱 닦아버린다. 아직 나는 장비까지 사용할 줄은 모른다.

설거지의 세계... 아직 갈 길이 멀다.



감사 행복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 감사'를 한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5가지를 '감사노트'에 쓴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날마다 감사를 5개씩 모았더니 한 권에 1000가지 감사를 쓸 수 있는 일천감사노트를 2권째 거의 다 채워간다.

〈오늘의 오 감사(12월15일)〉

- 1.엔서니티슬턴 고린도전서상,하(2326쪽)거대한 높을 주셔서 감사!
- 2.이양훈 목사님이 호도 한 봉지와 말씀묵상 보내 주셔서 감사!
- 3.붕어 두 마리를 맛있게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결혼 29주년 이혼 안 당하고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겁나 추운 날씨에 따뜻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운동을 하면서 붕어빵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천원어치(두 마리) 사 먹는 것이 나의 소소한 겨울 행복이다.



달콤한 시간

작년까지만 해도 '온수보일러'를 사용했는데 보골보골보르르르르 보그루... 물 끓는 소리만 요란할 뿐 별로 따뜻하지 않아서 겨울 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올핸 큰딸의 소개로 '카본탄소매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온도가 제대로 올라와 너무너무 뜨뜻뜨끈한 겨울을 행복하게 잘 나고 있다.

나는 전자파에 매우 민감해서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위에 누우면 몸이 웅웅거린다. 그런데 카본매트는 어떤 원리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전혀 전자 파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이다.

4시 50분에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따끈따끈한 이불 속에서 기어나오기가 쉽지 않음. 몽그적거리다 30분 정도 늦게 후다닥 일어나면 아침부터 정신없이 우당탕 통탕 난리가 난다.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비학산 일몰

▲제587회 비학산270 (일출봉252m) 2022.12.9.

▲제588회 비학산271 (일출봉252m) 2022.12.26

2022년 12월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5번째로 추웠고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장 추웠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지방에 갇혀 있던 '폴라 보텍스(Polar Vortex)'라 불리는 극소용돌이가 녹으면서 그 냉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와서 추운 것이라 한다.

추우면 꼼짝 못하는 나는 그래서 이불처럼 두꺼운 옷을 입고 몸이 둔해 곰처럼 뒹굴거리면서 방 안에만 있었다. 반짝 날씨가 풀렸던 9일에 비학산에 한번 올랐고 계속 못 오르다가 오늘 날씨가 조금 풀린 것 같아 두 번째 올랐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다. 겨울에는 해 넘어가면 금방 캄캄해지기 때문에 막 뛰어서 내려왔다.(2022.11.3.)

▲제589회 비학산272 (일출봉252m) 2022.12.29.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대한-24절기의 마지막

대한(大寒)은 지독한 추위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소한보다는 덜 춥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기가 24절기의 시작이며 봄의 시작이라는 뜻의 입춘(立春)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24절기가 '음력'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는데, 24절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24구간으로 나눈 '태양력'입니다.

24절기의 특징을 중국의 화북 지역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약 10일 정도의 계절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농사직설'을 편찬했지만, 중국 사대주의(자국보다 강한 국가에 복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받드는 주의)자들이 무조건 중국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기 때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중국 절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중국 사대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기 따라<들꽃편지>를 펴내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절기적 특징을 계속 글로 쓰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그런 저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셨겠지요? 지금은 우리가 '차이나'에 무조건 복종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②표지사진 이야기

겨울 산행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온 세상을 눈이 하얗게 덮어버린 '하얀 나라'를 보는 것이죠. 지대가 낮은 도시에는 눈이 잘 안 오지만 고도가 높은 산에는 지금도 많은 눈이 내립니다. 제가 찍은 눈 사진은 핸드폰 사진이라 퀄리티가 높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픽사베이에서 한 장 가져왔습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 신간 <들꽃편지7권 영경귀꽃호> 510쪽 21100원 -1월11일 출간
 - 65권 <들꽃편지7권 민들레호> 510쪽 21100원 -12월14일 출간
 - 64권 <들꽃편지6권 금계국꽃호> 506쪽 21000원 -11월15일 발행
 - 63권 <들꽃편지5권 참꽃> 528쪽 21900원 -10월19일 발행
 - 62권 <일상의 기쁨>(시집시리즈10권) 210쪽(올컬러) 13400원 -10.4일 발행
-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59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2.12월 재정결산

2022년 12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찬찬 권영섭 김명현 김상식 김재균 김정순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은희 양희창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옥진 정효숙
조정옥 지경희 최경자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 안디옥교회 평안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34분이 1,333,468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격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3.1.19일 까지 7427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후보자료파일, 전자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66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숙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새로 나온 책

제8권 합본

이 쪽지는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8권 영경퀴꽃호
최용우 편집 510쪽 21,1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33년 동안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그동안 펴낸 〈들꽃편지〉를 약 500쪽 분량 정도로 합본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들꽃편지 제8권 영경퀴꽃호〉는 2003.11월 제291호부터 2004.10월 제343호까지 1년 동안 발행한 40회분을 모았습니다.

이 시기는 충북 보은군 대청호 상류에 어부동 마을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섬을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돕는 현대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저는 학교 2층 교실 한 칸에 마련된 책방에서 열심히 글을 쓰며 월간〈들꽃편지〉를 만들고 주일에는 〈들꽃퍼는교회〉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40분 이상 꼬불꼬불 들어와야 하는 오지에서 거의 매일 변함없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과 책방을 왔다갔다 하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고, 오후에는 동네를 얼쩡거리며 할머니들과 친하게 지냈고, 호숫가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비밀한 만남을 가졌던, 저에게는 은총과 같이 숨겨진 시기였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어부들의 아침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던 작은 산골마을 어부들에 살면서 호숫가를 거닐며 쓴 맑고 밝고 환하고 시원한 시. 기분이 밝아지고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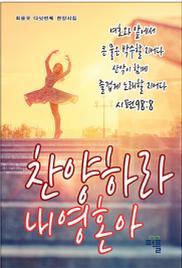
7,600원 150쪽 펴플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들. 그냥 따라 읽다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14,300원 398쪽 펴플



찬양하라 내영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나니 오늘도 입으로 말로 글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14,300원 398쪽 펴플



천년을 부르주님 내이에는 찬양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를 일천편 써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은혜를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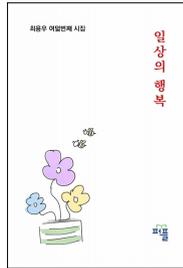
34,600원 1044쪽 펴플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

한 잔의 커피에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한 가득 담겨있네. 한 잔의 커피에는 쓴맛과 단맛이 나를 사로잡네. 한 잔의 커피에 여유와 자유가 향기로 피어나네. 우리 커피 한잔 할까요?

11,300원 168쪽(컬러) 펴플



일상의 행복

오늘 나는 참 잘 살았다. 아무 일 없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따라 찾아보는 즐거움과 행복을 단순하게 보여 주는 담백한 시집입니다.

13,600원 210쪽(컬러)펴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점) <http://cyw.co.kr>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48호 *발행. 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